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2018.12.13.(목) 16:30~19: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형천, 윤호섭, 김대중, 김지훈, 이준혁, 장선민, 이소정, 조철현, 이동협
불참위원 : 윤인석, 고주현
4. 회의내용
 - 본 위원회 연장자인 이형천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본교 학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음을 이형천위원이 설명하고, 이에 윤호섭 위원이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련 설치근거, 구성, 기능, 역할을 설명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각자 위원별로 자기소개를 요청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은 예산관련 모든 자료를 등록금심의기간 동안 회의 장소에서만 공개 열람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반납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다
 - 간사는 2019학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설명하다
 - 간사는 대외 주요 재정 정책 변화로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대학교육의 혁신 및 전략적 재정투자 필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및 학부 입학금 감축 요구, 정부고시 최저임금 10.9% 인상, 강사법의 국회본회의 통과, 학력인구 급감에 따른 전략적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 간사는 대내 주요 재정 정책 변화로 지난 10년간 학부 등록금 동결로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의 부족함, 학부입학금의 단계적 인하로 인한 등록금 감소,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한 용역비(경비, 청소 등) 증가, 기부금 수입 감소를 설명하고 특히, 강사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간사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다
 - 학부모위원은 기부금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확대를 위한 학교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학교에는 기부금 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대학발전팀을 두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콜센터운영, 총동문회연계, 1-1-1캠페인 등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모위원은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해 학교가 더 많은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다
- 학생위원은 기부금이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절반 정도로 감소한 후, 2012년, 2013년에 다시 2010년 수준을 회복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기부금의 연도별 변화는 기부자 발굴 및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고, 연도별 변동성은 당해 연도에 거액 기부자 또는 기부기관에 변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 간사는 대·내외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2019학년도 예산편성 기본목표로는 교육시스템선진화, 연구 성과 확산, 건전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으로는 재정투자의 성과 극대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재정수입의 다각화(순수외국인 및 한국어과정 유학생 유치확대, 기부금 확대, 평생교육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 관련전문가위원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의 전략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순수외국인의 본격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화사업팀을 중심으로 AFP운영(한국어과정생의 수강과목의 본교 입학 시 학점인정), 국제컨퍼런스 참가, 해외사무소 유치, 해외대학평가 관리 등을 통해 국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관련전문가위원은 베트남에서 한국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아주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순수외국인 유치 전략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학부모위원은 러시아, 몽골 등에서도 국내 대학에 대한 입학 수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재정 확보를 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본교의 순수외국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외국인 학생을 통상 학위과정유학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재정확보 및 글로벌 평가를 위해서는 학위과정 유학생이 중요한데, 현재 200명 수준임을 설명하다
- 학부모위원은 편입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편입생 TO는 상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현재 100% 충원은 아니지만, 편입생 TO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도탈락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확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 학무모위원은 순수외국인 학생은 정원이 없는 지 질의하다
- 간사는 순수외국인 학생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순수외국인 학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 간사는 2019학년도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본예산내역에 대해 수입조정 사항과 지출조정사항(계속사업 지출조정,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설명하고 부서별 예산조정 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류사업 예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간사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다
- 전문가위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 관련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100%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은 이미지광고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이미지광고는 대학의 평판도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전년 대비 소폭 감축)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은 등록금 수입이 몇 년 간 증대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반면에 장비유지보수, 건축물유지보수, 보도 블럭 보수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광고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하고,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직원위원은 전자저널 구독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년과 동결할 경우 전자저널수가 줄어들지는 않는지 질의하다
- 간사는 전자저널 구독료는 전년도와 동결하되, 현재의 전자저널 활용도와 필요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전자저널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은 시설유지 보수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안전에 위협할 수 있음을 말하다

- 간사는 시설팀과 협의하여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가로등 LED 교체공사 등 그 시급성을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오랫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대학이 기부금 유치 등 등록금 이외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학교 재정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 인상은 필요한데, 여러 정책과 연계되어 어려운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하다
- 학부모위원은 입학금의 감축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2017년 대비 매년 16%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에는 3.4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감축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세입 중 등록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학교가 등록금 이외의 재정을 확대해 왔다는 의미인지 질의하다
- 간사는 등록금 수입 동결, 국고재정사업 유치 확대, 연구과제 수주 증대로 비중이 낮아졌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입학홍보는 별도인지 질의하다
- 간사는 입학홍보는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집행되며, 입학전형료수입의 수지차액은 발생할 수 없으며,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수험생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공개경쟁 입찰은 공정하고 원가는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공개경쟁 입찰은 정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설명하다
- 간사는 추가 재정이 확보되면 보류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인권센터 직원 규모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인권센터는 신설조직이며, 인권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18학년도 특정 단과대학의 재학생 전체에 대한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2019학년도에는 그 외 모든 재학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학교 재정 어려움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하고, 기부금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가 전략적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참고자료를 배부한 후,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대비 교직원의 인건비는 거의 인상되지 않아 실질임금의 하락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보류예산에 있는 교직원의 임금인상분(1%)을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간사는 교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장시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자료 열람이 필요할 경우 기획처 예산팀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차기 회의로 연기할 것인지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에게 질의하다
- 위원전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등록금책정(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다

[심의 안건 1호 :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안건 1호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간사는 학부 입학금 19% 인하(안), 수업료 1.8% 인상(안), 일반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1.8% 인상(안),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료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의 전년도의 등록금 인상률을 질의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은 동결, 학부수업료 및 일반대학원 수업료 1.8% 인상을 가결하였으며, 단, 학부 수업료 인상률은 국가장학 유형II 지원조건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음을 답변하다
- 학생위원회는 학부 수업료를 1.8% 인상 시 장학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학부 수업료 인상분(1.8%) 중 21%를 장학금으로 배정함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 및 전문가위원은 특수대학원의 수업료 책정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다

- 간사는 특수대학원 중 비책임운영부서는 법률에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책임운영부서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원장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정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특수대학원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등록금이 학생충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대학교 유사 특수대학원과 비교 분석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운영비는 특수대학원 등록금 재원으로 충당하며, 대학본부에 간접비를 40%를 납부하고 있고, 이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운영 및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있는 지 문의하다
- 간사는 2019학년도 등록금인상 상한율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학생 입학금은 점진적으로 감축 80%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데, 과거 상황들을 보면 국가장학유형II와 등록금 동결은 연동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수업료 1.8%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 및 학생위원은 국가장학유형II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이 권고사항인지 질의하다
- 간사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유형II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은 사실 상 강제 권고사항인 것 같다고 말하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등록금 부담도 되고,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 학생위원은 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은 공감되나,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국가장학유형II 까지 받지 못한다면 본교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비등록금 재원 확충에 학교가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며 등록금은 동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교직원위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되나, 등록금 동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그 재원으로 니즈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해 학부 입학금은 19%인하(안), 수업료는 1.8% 인상(안),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동결(안), 수업료는 1.8% 인상(안), 특수·전문대학원 및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해 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단, 학부 수업료 인상률 1.8%는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국가장학유형Ⅱ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여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심의 안건 2호 : 2019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

-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안건 2호 「2019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간사는 「2019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 안건 상정기준은 공사금액 50,000천원 이상인 실내·외 환경개선 공사이며, 전기, 설비, 기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관리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해 투표결과 찬성 8명, 무효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제2호 안건 「2019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이형천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2018. 12. 13.(목)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형천	(서명) 	위원	장선민	
위원	윤호섭	(서명) 	위원	이소정	
위원	김대중	(서명) 	위원	고주현	(서명)
위원	김지훈	(서명) 	위원	조철현	(서명) 
위원	윤인석	(서명)	위원	이동협	(서명) 
위원	이준혁	(서명) 			